

# “절은 쓰레기장, 수행자는 청소부다”

## 아픈 마음 치유하는 정호 스님의 대기설법

부처님께서는 절과 수행자가 서 있어야 할 가장 적절한 곳은 산도, 시내 한복판도 아닌 중간 지점이라 했다. 욕망과 물질의 허망한 세계에서 벗어나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더라도 세간의 중생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중간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솟아오른 산도 마음과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에 위치한다. 그 이유는 또 뭐가?

“절은 쓰레기장이고 수행자는 청소부다.”

용인 대각사 주지 정호 스님은 절이 있고 수행자가 있을 곳 또한 쓰레기장과 같은 중간 지점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어느 한 겨울 구조조정으로 명퇴 당하고 보증을 잘못 서 집마저 은행에 넘어가 지방으로 이시간 신도 가족을 보면서 부터다.

이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스님은 “나는 부족한 수행자였다”는 탄식과 함께 절 한 칸에 이런 글귀를 새긴 팻말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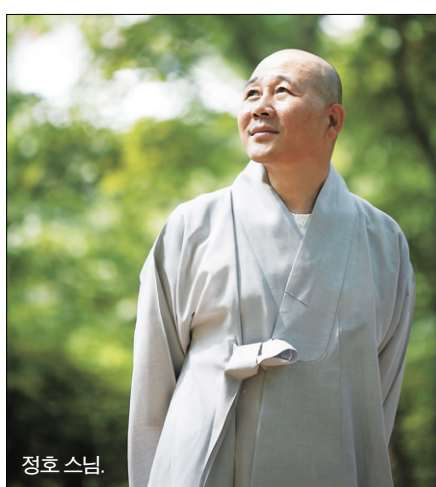
“절이라는 쓰레기장에 자주 찾아와서 마음의 쓰레기들을 버려 놓고, 돌아갈 때는 가볍게 돌아 가면 좋겠습니다. 번뇌를 버리러 왔다가 그냥 짊어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청소부를 불러 세워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저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수행자는 청소부입니다> (불광) 정호 스님 | 그동안 술하게 만났던 사람들이 털어놓은 문제와 고민, 상처와 괴로움을 들으면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모색한 이야기를 엮은 책이다.

이 책이 나온 배경은 정호 스님이 많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기 때문이다. 스님과 대화하고 싶거나,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이나, 기도나 명상을 하고 싶은 이는 주말에 무작정 스님을 찾아가면 된다. 대각사 지대방에서는 통곡 같은 울음소리로 들렸다가 곧 웃음소리로 바뀌고, 각계각층이 모여 열린 토론장이 되기도 하고, 즉석에서 수많은 주제로 소규모 워크숍 자리가 되기도 한다.

어려운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다 보니 이제는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들이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이주민센터’도 만들었다. 불교무설연구소, 광진구 자양사회복지관과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과 지역사회 포교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스님은 법파나 강연 초청을 마다 하지 않고 전국 어디든 찾아간다.

“바빠서 수행은 언제 하시느냐?”고 여쭙면, “출가한 지 30년이 넘어서야 이제 제대로 공부



정호 스님.

와 수행을 하고 있다”며 겸손한 미소를 짓는다. 수좌나 학인스님, 교도소 재소자, 동성연애자, 귀부인, 화난 사람, 절망한 사람 등 어느 누구를 대하더라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방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이 ‘현대판 선사’ 같다.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과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며 포교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늘 “자신의 발밑을 살핀다(照顧脚下)”는 스님의 정신자세가 흐트러짐 없는 수행자의 모습을 저절로 드러나게 한다.

수행자는 청소부입니다 | 정호 스님 | 불광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 ‘아! 이것이 깨달음의 순간이구나.’

## 선지식과 도반에 올리는 한 수좌의 수행 체험기

한 생을 오롯이 견성(見性)에 걸려놓고 참선하기를 20여 년 어느 가을, 정호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 선방에서 혼자 앉아 화두와 씨름하던 중 어떤 상태를 체험했다. 아니,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디까지 미치는 크기인지도 가능되지 않는 ‘어떤 것’이 인식되었다. 자기가 그 ‘어떤 것’이었다.

그러나 벽차오르는 환희심도 잠시,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던 순간 허망하게도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번적이던 느낌만을 남겨둔 채...

출가이후 단 한 차례 조계종 공할 주지를 역임하고 20여년 동안 봉암사, 칠불사, 해인사, 망월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좌의 삶을 철저히 살아온 정호 스님은 우연히 마주한 수행체험이 ‘견성’의 순간이었음을 경전과 선어록을 통해 확인하고 ‘함인 없는 수행(無修之修)’을 이어간다.

<숙제, 이번 생에 해내리> (클리어마인드)는 정호 스님의 공부 경험을 선지식들에게 공개해 점검을 받는 동시에, 출가 및 재가 수행자들과 공유하고자 수행일지와도 같은 진솔한 마음을 담은 책이다. 승수에 상관 없이 불제자의 최후 목적은 조건성이 아닌 ‘완전한 깨달음’에 있다는 ‘숙제’를 남겨주는 스님의 수행담이 어떤 수행자들에게는 자극을, 또다른 이에게는 희망을 준다.



‘한 맛(一味)’을 본 정호 스님은 “수행은 최고의 행복이며 축복이자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는 일,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렇게 강조한다.

“일체를 버리는 거다. 내려놓는 거다. 성스럽다는 생각,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 또한 버려야 할 망념이 아니라. 버렸다는 생각도, 내려놓았다는 생각도 갖지 않는 거다. 아릅답음과 추함,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분하지 말라. 매사에 가리고 구분하는 마음 없이 지내도록 하라. 그것이야말로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다.”

참선 틈틈이 조사어록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온 정호 스님은 “우리의 견고한 착각을 일깨우기 위한 조사들의 수많은 가르침과 일화, 깨진 기원이 오늘날 박제화 되어 있다”고 탄식하며, 선교겸수(禪敎兼修)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 훌륭한 사교입선(捨敎入禪)의 방편임을 은근히 암시한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확률대오의 그날까지 끝없이 초월하는 향상일로(向上一路)의 순수한 초발심을 놓지 않는다.

“내가 아직도 이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이라고 있구나.”

숙제, 이번 생에 해내리 | 정호 스님 | 클리어마인드 | 1만원 김성우 기자

### ‘총림’ 학술적 조명

#### 조계종 교육원 불학 연구소

종합수행도량으로 승가공동체의 핵심인 총림을 학술적으로 조명한 성과물이 나왔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 연구소(소장 현종)는 최근 <조계종 총림의 역사와 문화>를 출간했다.

책은 2008년 11월 열린 ‘조계종단의 총림을 조명하는 대토론회’에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해 발간된 것으로 합천 해인사, 순천 송광사, 양산 통도사, 예산 수덕사, 장성 백양사 등 5대 총림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은 “조계종단과 한국 불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강구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자료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두 성인은 어떤 가르침을 남겼는가?

#### 붓다·공자 사상으로 진리 세계 내달는 인문서

인류의 정신과 문명이 막 꽃을 피우던 시기, 동시대를 살았던 붓다와 공자가 깨달은 바는 무엇이며, 두 성인은 어떤 가르침을 남겼는가? 자비(慈悲)와 인(仁), 중도(中道)와 중용(中庸), 수심(修心)과 수기(修己) 등등.

붓다와 공자의 사상간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 붓다를 알면 공자의 사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두 성인의 38가지 핵심사상을 가리키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통점을 분석한 <공자의 법(法) 붓다의 인(仁)> (엘피)은 그런 점에서 진리의 세계로 한 걸음 내딛게 하는 인문서다.

‘실천적 지식인을 지향한 두 성현의 크로스오

버 철학’이란 부제를 단 이 책의 저자 박민영 문화평론가는 “붓다와 공자는 똑같이 인간을 고민했다”고 두 성인의 공통분모를 분석했다.

“붓다와 공자는 깨달은 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실천적 지식인이었으며, 각각 당대 중국과 인도의 사회적 문제와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개혁가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두 현인은 사후세계의 문제,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 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낮은 종교관념과 부단히 맞서 싸웠다’고 설명했다.

두 성인의 일화와 대화로 구성된 이 책은 원시 불교와 원시유교(한국 유교)는 사실상 송대 주자학 이후의 유학이대가 가졌던 건강성과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 지성의 경지를 여보게 한다.

‘공자의 법(法) 붓다의 인(仁)’ | 박민영 | 엘피 | 1만5000원 김성우 기자

### 진관 스님 시집·학술서

#### ‘거동사의 노래’ 등 펴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한결같은 삶을 살아온 ‘우리 시대의 지장보살’ 진관 스님(종단법 불교인 권위원장)이 15번째 시집 <거동사의 노래>와 연구 논문집 <근대불교 정화운동사 연구>를 나란히 펴냈다.



경북 영천 은해사 말사인 천년 고찰 거동사에서 수행하며 느낀 소회를 기록한 <거동사의 노래>(한강)에는 ‘거동사는 화엄도량’ ‘푸른 소나무’ ‘어둠이 내려오는 거동사’ ‘거동사 꿈의 노래’ ‘거동사 꽃밭’ ‘너비야 청산 가자’ 등 모두 144편의 시가 담겨 있다.

‘월탄(月譚)의 활복(擧腹) 50주년을 중심으로’란 부제를 담은 <근대불교...>(경서원)는 조계-태고종 분규의 시발점이기도 한 월탄 스님의 대법원 활복사건을 중심으로 근대불교사를 조망한 연구서다. 한편, 진관 스님은 두 책의 출판기념회를 9월 11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연다. (02)734-6401 김성우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미무리	법정	문학의 숲
2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3	법륜스님의 죽은죽실	법륜	정토
4	쉬고 또 쉬고	무어	새로운 사람들
5	인파경	현담	선
6	삶은 고가야이다	대행	한미음선원
7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8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진	마음의 숲
9	할로 죽고 밤으로 살기로	원철	호미
10	연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출처: 불서만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세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연습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연습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한국고건축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금호 임영창 합장

8차, 1차, 1차 2차, 크기로 조정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채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쉽, 저널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상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우루빈나기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이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애경)

불사 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물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에 일일이 일어난 및 할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을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지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동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 핀란드에서 온 100% 야생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기능성 색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폭격하던 영국공군 조종사들이 야간비행 전에 블루베리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이후 **물체식별**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량의 안토시아닌 덕분에 블루베리는 **우리몸의 젊음**을 지켜주는 과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인 판매

블루베리 파우더 -35,000원 => 32,000원  
블루베리 주스 =46,000원 => 42,000원  
크랜베리 주스 =46,000원 => 42,000원

YADANBOPSEOK 야단법석  
www.01053180704.com

010-5318-0704